

간세포암 환자에서 doxorubicin과 cisplatin 병합 용법에 대한 제 2상 임상연구(항암요법연구회)

인제대의대 내과 강보리\*, 유영진, 김성록, 계명의대 내과 송홍석, 이화여대 내과 이순남, 가천의대 내과 신동복,  
한양의대 내과 안명주, 위생병원 내과 박연희

**목적:** 간세포암에 대한 doxorubicin과 cisplatin 병합요법의 효과 및 독성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대상 환자:** ①조직학적으로 진단받은 간세포암, 또는 간경변과 측정 가능한 간 종괴가 있으면서 혈청 AFP가 400ng/ml 이상인 경우로, ②진행성이거나 국소치료를 거부한 경우 또는 국소치료 후 악화된 경우이고 ③이전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, ④작업능력이 ECOG 0-2 이고, ⑤나이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이고, ⑥골수 및 심장기능이 정상이며, ⑦간기능이 Child A 또는 B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.

**치료방법:** cisplatin 100 mg/m<sup>2</sup>와 doxorubicin 50 mg/m<sup>2</sup>를 제 1일에 정주하였으며, 이를 3주마다 반복하였다(regimen A). 그러나, 심한 혈액학적 독성으로 cisplatin 75 mg/m<sup>2</sup>와 doxorubicin 40 mg/m<sup>2</sup>(regimen B)으로 치료방법을 변경하였다.

**결과:** 1997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 6개 병원에서 23례가 등록되었다. 남자 18례(78.2%), 여자 5례(2.17%)이었고, 연령은 34세-64세(중앙값 52세)이었다. 작업능력은 ECOG 0이 9례, 1이 13례, 2가 1례이었다. 병기는 stage III 가 8례(34.7%), IV가 15례(65.2%)이었으며, 22명은 이전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였다. Regimen A가 20례, regimen B가 3례에서 사용되었다.

1회의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은 2례를 제외한 21례에서 평가가 가능하였다. CR은 없었고 PR은 6례(28.6%), SD 11례(52.4%), PD 2례(19.0%)이었고, 반응률은 28.6%(95% CI: 9.2-48.0%)이었다. 진행까지의 기간은 10-519\* 일(중앙값: 366일)이었고, 생존기간은 12-906\* 일(중앙값: 321일)이었으며, 6례(28.6%)에서 12개월 이상의 생존기간을 보였다.

부작용은 WHO기준으로 평가하였다. 총 84회의 항암제 투여 중, 혈액학적 부작용은 백혈구감소증 3도 13회(19.6%), 4도 7회(10.6%)이었고, 혈소판감소증 3도 11회(16.6%), 4도 9회(13.6%)였다.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오심 3도 5회(5.9%), 4도 1회(1.1%)이었고, 구토 3도 2회(2.3%)이었으나, 4도는 없었다. 1례(4.3%)가 치료 도중 감염으로 사망하였다.

**결론:** doxorubicin과 cisplatin 병합용법은 간세포암에 중등도의 효과를 보였으며, 부작용은 감내할 만하였다.

담도암 환자에서의 ECF (Epirubicin, Cisplatin and protracted infusion 5-Fluorouracil) 복합화학요법의 치료 효과

이명아\*, 문도호, 심병용, 송치원, 변재호, 우인숙, 강진형, 홍영선, 이경식

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**목적:** 담도암은 예후가 나쁘고 항암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종양 중 하나로 진단 당시 15 % 미만에서만 절제가 가능하고 이미 림프절이나 원격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. 아직 효과적인 표준항암요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Ellis 등이 ECF 복합화학요법으로 40% 의 반응율을 보고한 바 있다. 연자들은 진행된 담도암에서 ECF 복합화학요법의 치료효과와 독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방법:** 1996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로 확진된 담도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ECF 복합화학요법(Epirubicin 50mg/m<sup>2</sup> iv D1, Cisplatin 60mg/m<sup>2</sup> iv D1, 5-Fluorouracil 200mg/m<sup>2</sup> protracted infusion by chemoport)를 매 3주마다 반복하였다. 모두 계측 가능한 병변이 있었으며 매 2회 항암치료 후 반응을 평가하였다. **성적:** 20명의 환자가 총 63회의 항암제를 투여받았다. 남자 13명(65%), 여자 7명(35%)이었고, 나이의 중앙값은 53세(범위 40-76세)였다. 병기는 수술 후 재발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기였으며, 원격전이가 11명(55%)이었다. 반응율은 2명(10%)에서 부분관해(Partial response)를 보였고 9명(45%)이 불변(Stable disease)이었으며 완전관해는 없었다. 진행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2개월(범위 1-6.6달)이었고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4.7개월(범위 2-11달)이었다. 주된 독성은 혈액학적 독성과 오심, 구토, 구강점막염이었으며 grade 3, 4 독성은 백혈구 감소 6명(30%), 혈소판 감소 5명(25%) 빈혈 3명(15%), 오심 6명(30%), 구토 1명(5%)이었다. 치료와 관련된 감염이나 독성 사망은 없었다. **결론:** 담도암 환자에서 ECF 복합화학요법은 독성이 경하여 잘 견딜 수 있는 치료지만 기존에 발표된 결과에 비교하여 반응율은 떨어져 이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